

## 리보와 앤을 읽고

초등부 최우수 박지우 (백사초등학교 6-2)

나는 반짝거리고 따뜻한 입에 착 붙는 제목에 이끌려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 중 『리보와 앤』을 읽게 되었다. 『리보와 앤』은 플루비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도서관에 남겨진 두 로봇 리보와 앤이 주인공인 이야기이다. 이 책은 홀로 남겨졌던 리보의 외로움과 공간을 넘는 따뜻한 우정을 다룬다. 도서관 로봇인 리보와 앤은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 그러던 중 리보는 유도현 이라는 한 아이를 만나 우정을 쌓게 되지만 그 뒤로 플루비아가 퍼져 도서관은 문을 닫고, 직원의 실수로 전원이 켜진 채 남겨진 리보는 도현을 기다리며 앤과 함께 자신을 사람들과 단절시킨 ‘플루비아’에 대한 것과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통해 찾아보려한다.

리보와 앤은 도서관 로봇으로 기능을 가졌는데 그 기능들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들, 하는 것들과 유사한 부분이 꽤 많아서 로봇의 행동임에도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되었다. 리보와 앤을 두 번째로 읽으면서 주어진 임무와 기능만을 실행하는 로봇 리보가 도현을 만나고 나서 도현과 대화하고 도현을 기다리고 도현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며 리보가 도현을 만난 것은 행운이고 리보에게 도현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리보는 도현과 처음으로 그리워하고 걱정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둘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리보가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계속 센서에 손을 대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리보가 로봇의 한계에 갇힌 것 같아 슬펐다. 리보를 보고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도 인간이 정해준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보와 앤이 사람들이 갑자기 도서관에 오지 않을 때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책으로 정보를 얻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이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 리보와 앤의 세상은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코로나 19 때 집에 갇혀 살던 아이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 19 시기의 나는 거의 집에서 생활이 본 것과 들은 것 경험한 것의 전부였었으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 수업을 듣고, 여가 시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고 도서관에 들르고 수다를 떨기 보다는 방에서 누워 게임을 했다. 그러니 그 때는 마스크를 끼고 집에서 가족만 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도 든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앤이 "이야기는 나의 전부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앤은 앤이 아니야. 계속 이러면 '쓸모없는 앤'이 되고 말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앤, 즉 맡겨진 임무를 하지 않는 자신, 로봇을 쓸모없다고 말 하는 것을 보며 잠시 낭만을 좋아하는 앤이 사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인 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슬펐다. 조금은 앞으로 쓸모에 운운하지 않고, 내 개성대로만 살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장면은 앤이 도서관에서 리보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리보가 나는 내가 고민이 있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장면이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잠깐 책을 덮고 내게 고민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책 속에서 읽은 이야기를 나에게 맞추어 생각해 본 장면이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리보와 앤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이다. 혼자서 난관을 마주할 때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 만큼 리보와 앤, 도현이처럼 소중한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 진정한 꿈을 찾으러 갑니다

-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를 읽고 -

초등부 우수상 안세아(이천남초등학교 3-3)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는 가구 매장의 신입 사원인 곰 사원이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 책에 나오는 가구 매장 직원들 중 여우가 아닌 직원들은 겨우 2명, 곰 사원과 그의 친구 개 사원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이 매장의 직원들은 모두 여우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곰 사원의 꿈속에 나오는 작은 집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지만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곰 사원은 조금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가구를 하나도 못 팔았다며 혼나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울까? 나 같은 학생이라면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항상 망쳐서 엄마와 선생님께 매일 혼나는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매일매일 손님들을 만나며 소통해나가고 점점 발전하던 곰 사원은 이제 혼나기는커녕 돈을 잘 버는 직원으로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하루하루가 아깝다던 생각이 들었던 곰 사원은 꿈속에 나오는 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고 집을 깨끗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을 정리 해보니 마침내 그 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곰 사원이었습니다.

곰 사원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다양한 방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일이 꿈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집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곰 사원의 귀는 여우 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구 매장의 사원들이 거의 다 여우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른 동물들이 모두 여우로 변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속 집에서 문을 하나씩 열어나가며 곰 사원의 귀는 점점 돌아왔지만 한 지하실에 있는 작은 문 하나는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하며 기억해낸 곰 사원의 어릴 적 진짜 꿈은 예술가였고, 예술은 무가치하지 않다. 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된 곰 사원은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곰 사원이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룬 다음 꿈속의 지하실에 있는 작은 그 문을 꼭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진고민 여행사

- '고민여행'을 읽고 -

초등부 장려상 서 유 진(설봉초 1- 3 )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 고민 여행사입니다. 유즘 폭 지쳐있었어요.

하지만 힘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민 상담 좀 해 봐야겠어요. 고고 씩!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3번 김민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친구 앞에 가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어머니! 민후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구나! 이 풍선을 불면 씩씩한 어린이가 된단다! 나는 빨간 풍선을 민우에게 주었어요. 민후가 풍선을 불자 풍선이 말해요. “ 친구야 안녕! 나 너 좋아해! 민우의 기분이 좋아보여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민우야 잘가!

다음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4번 한지혜입니다. 팔이 부러져서 잘 밥을 못 먹겠어요. 어머! 팔이 부러졌구나! 많이 아프겠어요. 빨리 낫아요. 지혜에게는 파란 풍선을 줄게요! 지혜가 파란 풍선을 불어요. 풍선에서 “팔아 빨리 나아!” 라는 소리가 나요. 지혜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까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안고픈 것 같아! 걱정 끝! 지혜야 안녕!

저도 요즘 지쳤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미술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색칠 해야 할게 너무 많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는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요. 나는 노란색 풍선을 불 꺼예요. 노란색 풍선을 힘껏 불어보아요. 풍선이 잘 안불어져요. 그래도 계속 불어요. 이제 점점 커져요. 내 풍선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라는 소리가 나요.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이 보름달 같아요. 내 고민 안녕!

모두가 불편한 일이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풍선을 불어 고민을 날려보아요. 풍선과 함께 고민이 사라지게 되어요! 멋지죠!. 고민이 있는 친구들 풍선을 불어보아요!